

안정 속 변화 꾀한 벤투, '새 얼굴' 김신욱·이동경 발탁

벤투 "김신욱, 지금까지 공격수와 다른 유형"

"이동경, 좁은 공간 빠른 판단·해결 능력 갖춰"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는 9월5일 조지아전과 9월10일 튀르키예전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소집되는 태극 전사들은 조지아와 친선 경기를, 튀르키예전과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대장정에 오르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황희찬(27·지프링 보르도), 이재성

(27·VfL 보훔) 등 그간 꾸준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과 함께 김신욱(31·상하이 선화)과 이동경(22·울산현대)의 발탁이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A매치 2연전 소집 명단

을 발표했다.

축구대표팀은 9월5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이후 9월10일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튀르키예전전을 치른다.

올해 초 아시안컵을 끝으로 친선경기만 4차례 치른 대표팀은 이제 실전을 앞두고 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가장 큰 목표인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한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소집 명단 발표였다.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지 주목되는 것은 당연했다.

벤투 감독은 기존 주축들을 중심으로 새 얼굴을 가미해 '안정 속 변화'를 택했다. 그 중심에 김신욱과 이동경이 있다.

이 둘은 모두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소집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신욱의 경우 지난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뒤 처음으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신에 이동경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날 벤투 감독을 향한 질문 역시 이 두 선수에게 집중됐다. 벤투 감독은 김신욱에 대해 "김신욱은 예년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고, 우리가 관찰해 온 선수다. 이제까지의 공격수와는 다른 유형"이라며 "김신욱도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대표팀에서 우리 스타일 일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이고, 우리가 김신욱의 특징을 우리 대표팀이 잘 살릴 수 있는 조합을 찾

겠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신욱은 올 시즌 중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중국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다. 이적 전에도 K리그 득점 순위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국에 이적해서는 6경기 8골이라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다.

머리와 발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뿐 아니라 수비수를 등지고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패스도 절정에 올랐다. 지난 19일 FA컵에서는 20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결승행을 이끌기도 했다.

이동경은 올 시즌 K리그 선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현대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꿰찬 신이다. 각급 연령대 대표팀을 거쳐 이번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벤투 감독은 이동경에 대해 "기술력이 좋고 능력 있는 선수라 생각해서 발탁했다. 측면이나 중앙 모두 활약이 가능한 자원이"이라며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좋다"고 칭찬했다.

이동경은 소속팀 울산에서 올 시즌 18경기에 나서 2골2도움을 기록하며 김도훈 감독의 믿음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출전 시간이 길진 않다. 국가대표급 스쿼드를 자랑하는 울산에서 풀타임 활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벤투 감독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비록 소속팀에서 매 경기 90분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9월 친선경기-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KOREA MEN'S NATIONAL FOOTBALL TEAM SQUAD FOR INTERNATIONAL FRIENDLIES FOR SEPTEMBER 2019

김승규 KIM Seunggyu 울산현대	조현우 JO Hyunwoo 대구FC	구성윤 GUI Seungyun 군사도관료스포	김영권 KIM Youngwon 경남 FC	김민재 KIM Minjae 대구FC	박지선 PARK Ji-seon 울산현대	권영원 Kwon Youngwon 전북현대
홍철 HONG Chol 수원FC	김진수 KIM Jinu 전북현대	이용 LEE Yong 전북현대	김태환 KIM Taihwan 울산현대	정우영 JUNG Wooyoung 울산FC	백승호 BAEK Seungho 지프나FC	황인범 HWANG Inbeom 전북현대
이강인 LEE Kangin 발렌시아FC	권창훈 KWON Changhun SCFC	이재성 LEE Jaeseung 충주산천FC	이정용 LEE Jeongyong VFF	이동경 LEE Donggyeong 울산현대	손흥민 SON Heungmin 토트넘홋스퍼	황희찬 HWANG Heechan 레드불 브르노
나상호 NA Sangho FC코소보	김보경 KIM BoKyung 울산현대	김신욱 KIM Shinwook 상하이 선화	이정형 LEE Jeonghyeop 부산아이파크	황희조 HWANG Hyeojo 가천대학교	vs 조지아 09.05(목) 22:30 vs 튀르키예 09.10(화) 23:00	

선수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선택이나 옵션이 어떻게, 이 선수가 향후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LPGA 고진영 시대 열렸다... '무결점 플레이' 시즌 4승 달성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우승

고진영(24·하이진즈)이 세계랭킹 1위 다운 무결점 플레이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4승을 달성했다.

고진영은 26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매그나 골프클럽(파72·6709야드)에서 막을 내린 LPGA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금 225만달러)에서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위 니콜 라르센(덴마크·21언더파 267타)과는 5타 차였다.

이번 대회에서 고진영의 활약은 압도적이었다. 고진영은 나흘 동안 단 1개의 보기도 범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무려 80.4%(45/56)였고 그린 적중률은 90.3%(65/72)였다. 페어웨이 적중률(시즌 79.9%)과 그린 적중률(시즌 79.6%) 모두 시즌 기록을 능가하는 정



교한 플레이였다.

고진영은 날카로운 샷으로 지난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데이션에서 기록했던 개인 72홀 최저타 기록(당시 266타)도 경신했다. 또한 지난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 3라운드 2번홀 보기 이후

이번 대회까지 106홀 연속 노보기 플레이도 이어갔다.

고진영의 2019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LPGA투어 무대를 휩쓸고 있다. 총 17개 대회에 출전해 2번의 메이저 우승을 비롯해 4승을 쓸어 담았

다. LPGA투어에서 4승은 지난 2016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아리아 주타 누간(태국·2016년 5승) 이후 고진영이 처음이다.

고진영은 현재 올해의 선수상은 물론 상금, 평균 타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컷을 통과했고 톱10에 총 9번 이름을 올렸다. 가장 부진했던 성적은 지난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기록했던 공동 29위다.

최근에는 기세가 더 뜨겁다. 지난 7월 이먼지(호주)와 짝을 이뤄 출전한 더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다. 다음 대회였던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는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근 4개 대회에서 모두 톱3에 진입했고 우승도 2번이나 된다.

상승세를 타고 있어 5승 달성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고진영이 남은 대회에서 1승을 추가하면 주타누간 이후 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2015년 박인비 이후 4년 만에 5승을 달성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막바지 접어들 프로야구, 순위경쟁 고착화

2위·5위 싸움 현재진행형, 탈꼴찌 경쟁도 치열

2019년 프로야구 순위경쟁이 어느 정도 고착화 된 가운데 약간의 변화 여지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규리그가 3주 남은 2019 KBO리그는 팀별 최소 116경기(삼성)에서 최대 123경기(키움)를 소화하며 144경기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순위경쟁은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1위는 SK가 무난히 지켜내는 분위기다. 79승1무41패로 승률 0.658을 기록 중인 SK는 2위 두산과 승차도 6.5경기로 상당하다.

8월 들어 살아난 두산은 최소 2위 이상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민이던 세스 후랭코프가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오재일 등 중심 타선이 반등에 성공했다. 일찌감치 20승을 달성해 성공한 최고의 에이스 조시 린드블럼의 존재도 든든하다.

키움 역시 2위 도전이 현실적 목표다. 1위 SK와 승차는 8경기로 벌어진

상황. 반면 2위 두산은 1.5경기 차로 가시권이다. LG는 일단 줄곧 지켜온 4위 자리 수성과 함께 조심스럽게 더위도 바라본다.

5위 경쟁이 가장 뜨겁다. NC와 KT의 승차는 단 1경기. 더군다나 아직 5차례의 맞대결도 남겨졌다. 당장 27일과 28일 창원에서 열리는 팀간 시즌 12, 13차전에서 불꽃튀는 순위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위권은 7위 KIA와 8위 삼성이 1경기 차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팀 모두 사실상 포스트시즌 진출은 어려워졌다. KIA는 일찌감치 젊은 선수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의외의 순위경쟁은 맨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롯데와 한화가 앞치락뒤치락 탈꼴찌 경쟁 중이다. 현재 9위 롯데와 10위 한화는 0.5경기 차 살얼음판 구도다. 롯데와 한화 역시 4차례의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6승6패로 호각세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